

세상에 처음 모습 드러낸 위례 ‘상월선원’

■ 봉봉 및 현판식 현장

“이 자리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
9명 수좌 고불문 낭독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묵언하며 옷은 한 벌만
규약어길 시 제적 각서

입재일인 11일 오후2시
선원 내부 대중에 공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약 바
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
다바야...” 그날은 들판이 펼쳐진 위례신
도시의 한 대지에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지난 4일, 아직
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위례 상월선원
에 석조여래 부처님이 모셔지고 선원 원
판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은 서리를 맞으며 달을 벗삼는다는
‘기해년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본
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봉불식
과 환판식이 열린 날이다. 일찍부터 도량
을 찾은 봉은사 스님과 불자들은 거룩한
결사에 함께할 것을 발원하며 봉불식에
함께했다.

듣던 대로 상월선원은 파격적이었다.
천막결사라는 이름처럼 최소한의 눈과



비를 피할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허허벌판에 들어섰다. 이번 결실을 발원한 전 총무원장 자승님을 비롯한 무연, 성곡, 심우, 호산, 진각, 재현, 도림, 인산님 등 9명의 대중들은 동안저 입재일인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외부와 접촉을 아예 끊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정진을 한다. 전례 없는 도량인 만큼, 이날 오후 2시 선원 오부를 개강해 대중들에게 공개한다. 이어 오후 3시 바깥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여는 흥행정진에

들어간다. 선원 바로 아래에 전국 불자들도 신심과 원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방이 열리 임시 법당을 세웠다.

▶ 관련기사 2면

오전 10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의 취지 및 경과보고로 본행사가 시작됐다. 덕문스님은 “2월 자승스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이니, 승가본연의 모습으로 정진해 보자는 뜻을 만나는 대중마다 제안했다”며 “11월 화엄의 기운이 가득한 부처님을 모시고 광명이 들어찬 선원 문을 활짝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사 대중을 대표해 진각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며 목숨 건 정진으로 용
맹정진할 것을 맹세했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는 이날 스님이 대중 앞에 약속한 청

규에 오롯이 드러났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하고, 묵언하며,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 자리에 함께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도 “아홉 선지식의 결사 원만회향”을 한 마음으로 응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치사에서 “수행자 본분사에 맞는 불보전의 응맹정진을 통해 한국불교 청정성을 회복하고 수행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승가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도 축사에서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

오는 11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지난 4일 위례신도시 포교도량 부지에서 상월선원 헌판식이 봉행됐다. 11일 오후 3시 문이 잠기면 9명의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천막 안에서 추위와 싸우며 묵언 정진한다. 1월1식 의 식발과 고행을 하지 않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을 시작하게 된다. 김형주 기자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끝내 정진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 선덕 정목스님도 "정진적 지도자들이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때, 스님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정진을 하시기 됐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재가신도를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며 "결체대중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무문과 체계를 신성한 제1호 재가신도이기도 하다.

오전11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결사동참 대중 스님들은 '상월선원(霜月禪院)'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글씨는 진제 종정예하가 직접 써 내린 것이다. 제막과 동시에 2000여 사내대중의 사홍서원이 펼쳐졌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11월, 스님들은 한겨울 아야전막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진한다. 이날 대중 스님들은 총무부장 금국스님에게 ‘구약을 어길 시 조계승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제적위를 제출했다.

하남=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총림 방장 현봉스님 추대...217회 정기종회 개최

종단 목적불사 추진계획 바탕
한정된 재원 효율적 관리 원칙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심의



불기 256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종단 주요 인사 등을 논의할 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5일 개원했다. 15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기회 첫날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이번 정기
회는 내년 종단의 살림을 정하는 예산 총

회인 동시에 종
헌종법 개정안과
각종 인사에 대
한 선출동의안을
다룬다"며 "산적
한 의제가 중앙
종회의원 스님 한
분 한분 앞에 놓
판단과 결정을 내
말했다. 전 총무원
여하는 위례신도시
대한 응원의 말도
전 총무원장 스님

과 여덟 스님의 대작불사가 원만회향하길 삼보전에 기원하며 많은 스님과 재가신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마음을 모아 달려”고 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본회의에 앞서 이번 정기회가 종단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만큼 안건들을 세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제36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교구 및 사찰에서 충당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사업체

획을 수립하는 등 종단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내년은 10년마다 찾아오는 정기 분할신고의 해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비롯해 종단 목적 불사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려복지제도 장기적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승려복지' 개정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조계총림 방장으로
현봉스님(사진)을 추대했다. 현봉스님
은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32안거를 성만했으며 제 11~12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오계원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계총림선원 유나, 감원, 한주 등을 비롯해 봉암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주 소임을 지냈다.

중앙중회는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총 21개 안건을 채택했다. 개원 첫날인 5일 중앙중회는 교구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대종사 법계 품서자에 대한 기본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제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공감대 형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철회하는 결정했다. 이날 종정 25사를 위해 회화한 중앙중회는 6일 오후 2시 속개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경민 기자

2020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9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문학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마감:**
2019년 11월4일~ 12월6일(금)
- **응모대상:** 불교문학에 관심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단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또는 A4용지 (아래 한글, 11포인트) 10매 내외.
 -문학평론 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또는 A4용지 (아래 한글, 11포인트) 8매 내외.
 -동화 부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또는 A4용지 (아래 한글, 11포인트) 4매 내외.
 -시·시조 부문(5편 이내).
- **상금:**
 -단편소설 500만원 -평론 300만원
 -동화 300만원 -시·시조 3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당선작발표:** **2020년 1월1일** 신년특집호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 수 처:**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경치동) 전법회관 2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 **유 의 사 항**
 1. 결본부에 신춘문예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을 명기해주시고요. 서류봉투에 담아 접수 바랍니다.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시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본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맨 첫 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 해 주십시오.(작품내용 안에 이름 등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해외에서 접수 시 한글과 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량. bud22@ibulgyo.com)
- **문의:**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5면

본지 승보공양운동 특별기획 13면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 휴대폰 보조배터리 사용(9시간 가능)
(배터리 성능 10,000mah이상) (오냉&샤오미)



기존 가격 **260,000원(배터리별도)**
가격 **150,000원(배터리별도)**

입는순간 3초안에 후끈후끈한 발열승복조끼



차이나스타일(목열선처리)
사이즈: M, L, XL



브이넥스타일
사이즈: M, L, XL



브이넥스타일 자크
사이즈: M, L, XL



브이넥스타일 단추
사이즈: M, L, XL

준우 승복 DC 발열조끼의 특징

- 무전자파 (공인기관 인증성 획득)
- 평균 99.9% (공인기관 인증성 획득)
- 준우 원적외선 93% 이상 (공인기관 인증성 획득)
- 발열 (공인기관 인증성 획득)
- 음이온 방사 (공인기관 인증성 획득)
- 중금속 무검출 (공인기관 인증성 획득)
- 원팀 에너지 적용
- 차별화된 광파 에너지 보온방식
- 다양하고 혁신리한 디자인
- 최초 풀벨트 가능 (수중에서도 발열기능 동일)
- 안정성 기능성 탁월
- 착용시 10초 이내 기능 발휘
- 세계 최초 순수 광파열선 발열메어
- 타사 제품과 비교시 모든 면에서 비교불가적 발열메어로써
- 뛰어난 경쟁력

다양한 디자인!

입는순간 따뜻해지는 발열 조끼·자켓

NAVER 준우아웃도어 검색

제품 효과

침질효과로 목디스크, 오십견, 등근육질환 등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



남성: M, L, XL



남성: M, L, XL



여성: M, L, XL



여성: M, L, XL

남성: M, L, XL 기준가격 **140,000원(배터리별도)**
여성: M, L, XL 기준가격 **78,000원(배터리별도)**



여성: M, L, XL



남성: M, L, XL



남성: M, L, XL



여성: M, L, XL

여성: M, L, XL 기준가격 **260,000원(배터리별도)**
자켓가격 **98,000원(배터리별도)**

대리점모집 · 전국총판

(주)준우코리아

제품문의 031-846-3145 010-7462-7274